

모두가 청와대만 쳐다 보는데... 박대통령 세월호법 '침묵'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

야당 "유가족 노숙하며 면담 요청도 외면...비정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꼭 막힌 세월호 정국의 타개를 위해 직접 나서달라는 세월호 유가족과 야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25일에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상 민생법안 등의 분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권을 우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법이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침묵은 "세월호법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야당은 세월호법 제합의안이 유가족 반대라는 벽에 부딪히자 박 대통령을 향해 "유가족을

만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청와대는 "세월호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법 해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고 하는데 그렇다면 야당도 세월호법 제합의안을 당론으로 타결시켜 줘야 한다"며 "현재의 모든 문제는 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아 생긴 혼란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야권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며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청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상 새정치민주연

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이 2차례에 걸친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를 뒤집고 이제는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및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제안하며 민생법안 등의 분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야당이 당내 강경론에 휩쓸려 세월호법을 각종 민생법안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시급한 법안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3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세월호특별법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지만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는 벌써 남의 일이 돼버렸나"라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與, 자질검증 주력

野, 재산형성 추궁

국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현존 대법관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윗분들 눈치를 봐서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서류에 흔들리거나 인터넷에 비난 글이 쏟아질까 봐 이쪽저쪽 재면서 여중간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전순옥 의원은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봉아파트 1채를 주거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면서 "놀라운 부동산투기 실력"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 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장인 소개로 심사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가족 대표와 만난 새누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2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여야 재합의안 수용"

"특별법 이달 안에 통과돼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인선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

용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서명 동참과 릴레이 단식 등으

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있지만 저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일부 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족 뜻과 달리 사건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

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월호에 남은 10명의 실종자와 진도에 남아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하고 43명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여야 합의안 수용 방침은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수용 불가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여야 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자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악성루머 도 넘어

민간인 불법사찰 떠올라"

새정치 조정식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사무총장은 25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악성루머와 댓글,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단식 중 쓰러진 유민 아빠(김영오씨)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딸의 죽음을 밝히려 사선을 넘나드는 아빠의 마음에 위로는커녕 조롱과 냉소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유민아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정권 민간인 불법사찰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태다. 국정원은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서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7)	광주교육대학교(10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 (중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 (고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1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1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강기와 지붕 / 아지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분사: 송남 흥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흥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